

AVENUE L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AUGUST 2011



WEDDING
FANTASY



이동기 'Power Sale', Acrylic on Canvas, 380x840c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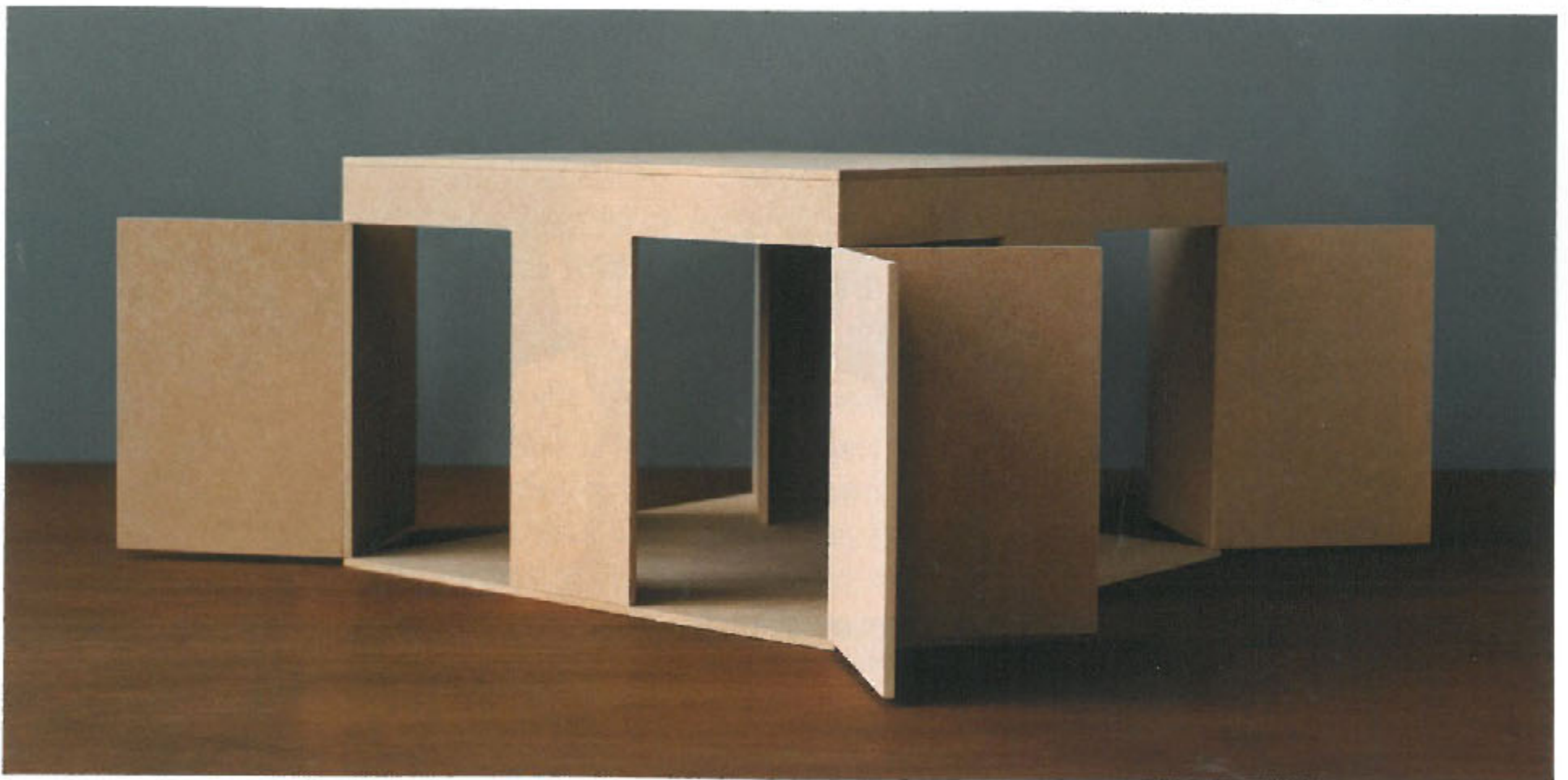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이동기, 이형규, 정수진, 미나&Sasa[44], 슬기와 민, 김종상가... 그 먼먼이 흥미로운 작가들의 이름이 한 줄에 꿰어졌다. 바늘과 실을 든 주체는 삼성미술관이다. 리움은 2001년부터 국제적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내 작가를 지원하는 <아트스펙트럼>전을 개최하고 있다. 그 10년 역사를 갈무리하는 의미에서 열리는 <스펙트럼-스펙트럼>전은 올해까지 배출된 48명의 작가들 중 한국 미술의 승추가 된 작가 7명이 신진작가 7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10월 12일까지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문의 2014-6550

시적인 오브제

공기의 입자마저 느껴지고 만져질 것 같은 정희승의 사진은 그 앞에 미물세 하는 힘이 있다. 작가가 무심한 듯 건조하게 우리 앞에 내놓은 이미지들은 비밀스런 이야기의 시작 같기도 하다. 열려 있지만 닫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나무 상자는 건축적 오브제처럼 보이나 동시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한다. 국내외 미술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희승은 재현의 대표적 매체로 인식되어온 사진의 한계와 속성에 주목한다. 정연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지극히 감각적이고 시적인 표현 방식을 구사하는 그의 사진은 일종의 성장과도 같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모습들을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과정은 더욱 견고해지는 듯 보인다. 8월 5일~9월 12일까지 PKM 갤러리에서. 문의 734-9467

정희승 'Room with Revolving Doors', 2014.



GRAPHIC ART SPACE

김영나의 개인전은 꽤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래픽 디자이너인 작가는 전시 공간 전체를 그래픽 아트로 장식했다. 작가가 평소 작업했던 포스터나 홍보물이 3차원의 공간에 대입된 느낌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전시장 건물 지하 주차공간에서부터 건물 입구를 빠져나와 전시장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에서 마주친 사물이나 공간 구조를 모티프로 한다. 기존의 시각 언어를 흔뜨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시도를 즐겨온 작가는 전시 공간 내외부에서 만들어지는 이질적 균열과 충돌을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8월 23일까지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문의 708 5050

김영나 개인전 (선택표본)의 전시 전경.

